metro®

메트로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제3012호 www.metroseoul.co.kr

세제 혜택 상품 한 계좌로 관리

은행·증권·보험업무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위, 현장 발굴 규제 중 40% 711건 개선키로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시 최고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 재형저축이나 연금저축 계좌 등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은행·증권·보험 등을 같은 공간에서 이용하는 원스톱 종합 금융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지시한 이후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발굴한 1769건 규제 가운데 40% 가량인 711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단종 보험대리점 허용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도입이다.

ISA란 소장 펀드나 주식, 보험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계좌에서 종합관리하는 것이다. 고객은 스스로 자산을 선택해 다루고, 세제혜택도 통합해 받을 수 있다.

그간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펀드 등을 특정 상품별로 각각 장기 보유해야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불만이 있었다.

가입대상이나 범위 등 ISA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도도입시 금융 소비자의 실질적 재산증식과 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업무와 관련한 칸막이도 한층 더 낮아진다. 금융위는 한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복합점포 형식의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와 휴대폰 대리점처럼 보험상품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단종 보험 대리점 등이 허용된다.

또 금융거래 시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요구하는 문서 관행도 철폐되며 전업 주부와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금융사 진입, 업무, 자산운용과 영업 규제는 대폭 폐지·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방위 금융개혁 실시

금융실물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 기준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은 3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위가 청년창업특례보증의 연령 제한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하고, 지원액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술우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85%)뿐 아니라 비보증부분, 즉 은행책임 부분인 15%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망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17세 이상 우수기술 창업 보증없이 3억원까지 지원

주부·외국인도 카드발급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3년까지 연장 가능했던 담보어음보증이나 지식기반기업보증 등 중소기업 전용 보증상품을 이용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려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해외로 진출하는 금융회사에 한해서는 은행과 증권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설 뱅킹'이 허용된다. 이 경우 비은행 금융회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지 법의 테두리에서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다.

예컨대 국내은행이 홍콩에 진출할 경우 랩어카운트를 운용할 수 있고, 고수익사업인 IB업무 또한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업권 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며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업무단위를 기존 42개에서 13개로 줄이고, 금융투자업의 신용공여한도(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의 합산)도 자기자본의 100%까지로 확대한다.

이밖에 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확대와 자산운용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를 폐지한다.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도 실시간 매매로 바꾸고,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의 상시화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개선 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와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관리하고 세부과제의 실천과 점검을 직접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역설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우리의 미래 "너무 귀여워"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5회 경기도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튼튼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다. /연합뉴스

女청소년… "결혼해야" 46% 뿐

양성평등 인식, 직업 선택에서 남녀 시각차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 청소년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5.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남자 청소년은 62.9%가 '해야 한다'고 응답해 남녀 청소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양성평등 인식과 관련해서는 2013년 청소년 10명 중 9명(91.7%)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74.6%로 남자 청소년(58.9%)과 큰 차이가 났다. 반면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약 16% 포인트 높았다.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다. 2012년 여자 청소년 10명 중 7명(69.6%)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남자 청소년(55.2%)에 비해 14.1% 포인트 높은 수치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남자 청소년은 모두 감소한 반면 여자 청소년은 둘 다 증가했다.

2012년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2.9%)' '직업(25.7%)' '외모·건강(16.9%)' 순으로 조사됐다.

2013년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적성·흥미(34.2%)' '수입(27.0%)' '안정성(21.3%)' 순이었다.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적성·흥미'와 '보람·자아 성취'를, 남자 청소년은 '수입' '안정성' '명예·명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음악방송 문제 본질은…

기자 수첩
양 성 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2.3%, 2.8%, 2.1%'.

지상파 3사 음악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수치다. 인기아이돌 그룹을 대거 투입시키며 시청률 효과를 노렸지만 애국가 시청률(3%)을 넘지 못하고 있는게 음악방송의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현재 음악방송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오랜기간 음악을 준비해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완곡을 부를 수 없다"며 "한정된 시간에 15팀이 넘게 출연하다보니 가수는 물론 팬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쏟아지는 신인과 기성 가수의 출연이 한 데 몰리면서 방송무대에 설 수 있는 시간은 갈 수록 줄어든다. 신인의 경우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완곡이 아닌 3~4분, 아니 2분 30초로 줄인 곡을 무대에 올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실력파 가수는 물론 신인 가수들도 게릴라 콘서트를 열고 팬들을 만나고 있다. 시간에 쫓겨 부랴부랴 무대를 준비해야하는 지상파 음악방송이 아닌 시간적 제약 없이 자신들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게릴라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팬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음악적인 가치관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한 음악방송에서 반주와 목소리가 녹음된 AR로 무대에 서는 것, 또 스튜디오에서 가수들의 목소리 믹싱까지 끝낸 반주용 MR로 무대에 서는 것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받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악수를 한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뒤쪽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명수·정성근 후보는 안돼"

야당 요구에 박 대통령 "참고하겠다… 상생국회 만들어 주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관여 금지와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하자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시작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 대해 잘한 것 같다고 말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의 국회로 만들어 가면 국민께서 크게 박수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세월호 사고 후 많이 주춤주춤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어려운 게 서민층"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박 원내대표에게 "헌정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로 기록 됐는데,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 정례화 방안을 제안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세월호특위 출석한 김기춘 실장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근 "음주운전, 부끄럽고 송구"

야당 비판 막말도 사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논란 등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SNS상 야당 비판 막말성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질문에 "정당의 당원으로서 한 일이지만 이런 지적을 받으니 너무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깨끗이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는 "제 큰 과실이며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가는데 저희 집이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대리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 근처에서 스스로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 격인 '희망연구소'를 공천 대가로 무상 임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저한테 돈을 누가 준 바도 없고, 제가 2월 말 당협위원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않았고 공천에 관여도 안했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더 나은 업무 수행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북, 亞게임 관련 15일 실무회담 제의

● 북한이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및 응원단 파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이달 15일께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10일 제의했다. 북한의 실무회담 제의는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허동준 "결과 수용… 재보선 불출마"

● 새정치민주연합 허동준 전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허 전 위원장은 10일 "주변에서 무소속 출마 권유도 있었지만 우리 당이 새롭게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 허동준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재보궐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말했다.

"북 미사일 발사,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

● 국방부는 10일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동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모두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공직 후보 8대 검증항목 공개"

새누리당 혁신 기구인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는 10일 주요 공직 후보자의 재산형성 등 '8대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검증위에 가기 전에 자기 검증을 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민 누구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 검증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 항목에는 ▲투기, 내부자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고액 강연 등 탈법적 재산형성 ▲병역 회피나 특혜 ▲탈세 ▲위장전입 ▲금고이상의 범죄 ▲논문표절 ▲자녀 이중국적 ▲기타 사생활 문제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jhj@

전국 덮친 폭염·열대야 '주춤'

태풍 '너구리' 소멸로 북서쪽 공기 유입… 13일 장마전선 형성

한반도가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았지만 태풍이 몰고온 덥고 습한 공기로 폭염과 열대야 현상에 몸살을 앓았다.

10일 새벽 군포, 안양, 수원, 대구 등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관측됐다. 서울 역시 전날에 이어 공식적인 열대야는 아니었지만 열대야 수준으로 더웠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늘었다. 9일 서울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10일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남서부와 동남부, 강원도 영서, 충남, 경북, 대구 등지로 확대됐다. 폭염주의보는 6~9월 하루 중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그러나 기상청은 10일 "태풍 너구리가 소멸되면서 11일부터 일시적으로 북서쪽의 다소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감싸면서 며칠 동안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더위는 이어지지만 폭염이나 열대야 현상은 주춤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고기압이 약해지고 다시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중국 남부 지방에서 장마전선이 생겨 13~14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장마는 보통 6월 하순에 시작되는데 올해는 7월 초로 늦게 시작됐다"며 "장마는 차가운 오호츠크해 기단과 따뜻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서로 충돌해 형성되는 데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약해 다소 늦게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마전선이 태풍 너구리 영향으로 세력을 거의 잃었지만 태풍이 소멸된 뒤 다시 형성될 것"이라며 "올해는 적도 근처에서 엘니뇨 현상(해수면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해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을 막고 있어 장마전선이 형성되더라도 주로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폭염에 분주한 얼음공장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0일 춘천시 서면의 한 얼음공장에서 직원들이 주문량을 맞추기위해 얼음을 만들며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피노에게 희망을… 사단법인 탁틴내일 회원들이 10일 오후 신촌에서 '코피노들을 위한 희망 캠페인'을 하고 있다. 코피노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책임 있는 조치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코피노는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로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지칭하는 말이다. /연합뉴스

김형식 "원점 재수사 해달라" 요구

검찰 구속기한 연장신청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며 '원점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서에서 경찰이 함정·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치장 CCTV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일 직접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 내용 중 원점 재수사의 필요성을 정중히 촉구한다"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저의 적극적인 방어권으로서 불출석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10일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8일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김 의원이 살인교사를 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팽모(44·구속)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다. 그러나 팽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증거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팽씨는 9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의원과 팽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는 신청서를 법원하기로 했다. 법원이 허가하면 이들의 구속만기일은 22일로 늦춰진다.

/김민준기자

교원단체 "김명수 사퇴" 한목소리

청문회 뒤 '자질론' 불거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과 현장의 교원들이 김 후보자가 공직수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논문표절 등 갖가지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통해 평생 교육자와 학자로서 걸어온 명예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도 9일 "'양파남'이라 불릴 정도로 끊임없이 나오는 의혹들이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변명과 둘러대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김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교육감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할 균형 잡힌 인사를 발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dh@

佛 법원, 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또 기각

프랑스 법원은 9일(현지시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7)씨의 보석 신청을 세 번째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체포된 섬나씨가 2013년 초부터 살아온 프랑스로부터 도주할 수 있다며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섬나씨는 국내 송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금 상태로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을 받게 된다. 국내 송환 여부는 9월 17일 결정된다.

프랑스 경찰은 섬나씨가 2004~2013년 800만 달러 횡령 혐의에 따라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5월27일 그녀를 체포했다.

/김민준기자

'도시농업 공동체 한마당'

서울시 노원구는 '옥상 텃밭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는 하계한신아파트 관리동 앞에서 12일 '도시농업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성환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아파트 마을공동체 협의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석면 지붕 교체비 지원

서울시 동대문구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년도에 약 535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단독주택 22동의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억5280만원의 예산으로 51동의 지붕 교체를 시행할 계획이다.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서울시 중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조사반을 편성,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차량진출입로 499여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NK 대표 추가 기소

주가조작을 통해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NK 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가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 대표는 2009년 3월 CNK 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 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 2009~2010년 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 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중요 물품부터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롯데타워에서 열린 화재대피훈련에서 건물 입주자들이 중요문서를 반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교복값 걱정 다소 덜듯

학교주관구매 의무화·상한 20만3000원

내년부터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복의 '학교주관구매'가 국·공립학교에서 의무화됨에 따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교복 값의 덜미가 잡히게 됐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은 참여가 원칙이지만 교복물려입기·교복장터 등을 활용하는 학생에게는 예외를 둘 계획이다.

교복 가격도 내년 신입생 기준 동복 한 벌당 약 20만3000원을 넘지 못한다. 교육부가 권고한 가격이고 각 시·도교육청이 상한가를 최종 결정한다. 이로써 평균 25만원을 웃돌던 교복 값이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경쟁으로 상당 부분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 6월 창립총회를 가진 'e착한학생복' 협동조합은 이미 14만원에서 최대 18만원대의 가격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조합은 교복생산공장과 소비자(학교·학생)를 바로 잇는 유통구조로 기존 브랜드가 전개하던 방식에서 중간 유통 마진을 빼 이같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화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가격을 내리는 게 쉽지만은 않다"며 "최대한 상한가에 맞추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브랜드를 건 대리점의 입찰 참여는 그리 높지 않다. 아무래도 기존 판매가를 상한가에 맞추려면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교복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는 "판매가는 비용과 수주량 등을 고려해 대리점주가 정하는데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려는 분위기"라며 "본사에서도 비용·원가 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출고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스마트폰 불법 도청' 첫 적발

경찰 수사팀에도 시도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도청 조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낸 뒤 '사이버 흥신소'로 인터넷에 광고해 1건에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알고서 수사팀원을 상대로 도청앱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도청으로 약점을 포착한 공무원 등 3명을 직접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윤다혜기자

금괴 밀수 급증 10일 오전 인천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세관 직원들이 특수제작 조끼에 숨겨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1kg짜리 금괴 24개 등 올 상반기에 적발된 밀수 금괴 및 금장식용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신고 "효과 없어"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고 있으나 피해 신고의 효과에 대한 불신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49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4%로 지난해 2차 조사 때의 1.9%보다 0.5% 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가족이나 학교·친구·상담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가운데 '신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9%에 그쳤다. 이는 지난번 조사 때보다 7.3%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신고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8.3%에서 33.1%로 4.8% 포인트 증가했고, '신고 효과가 보통이었다'는 33.0%로 2.6%포인트 늘었다. /윤다혜기자 ydh@

홈쇼핑 허위 거래로 '카드깡'

결제액 30% 떼고 대출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속칭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대출을 원하는 이들 수천명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 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들이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민준기자 mjkim@

권익위 "관례적 성과급은 임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줬다면 이 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남의 한 부실채권 판매회사는 매월 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이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주고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기본급을 30% 삭감해오다 경영악화로 지난해 2월 도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이 회사 퇴직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성과급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관례가 형성됐다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준기자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서울지하철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10일부터 '제7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만 18세 이상이면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문 예술가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이다.

공모분야는 한국화·서양화·사진 등 3개 부문이며, 공모 주제는 자유이나 지하철을 주제로 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작품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미공개 순수창작품이어야 하고, 1인당 작품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다음달 29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 신청서와 작품 사진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은 1400만원 규모로, 상금 수상작은 서울메트로에 귀속된다.

시상내역은 ▲대상(1명·500만원) ▲최우수상(3명·각 200만원) ▲우수상(3명·각 100만원) ▲특선(14명·상장) ▲입선(40명·상장) 등이다.

입선을 포함한 수상작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메트로 미술관(3호선 경복궁역 소재)에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메트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운영사무국(02-515-7227)에 문의하면 된다. /윤다혜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疑似假和尚哄騙路人。(互聯網)

假和尚闖美國？疑紐約街頭呃錢

敗類 曾在香港街頭「化緣」

metro Brazil

oeste, no dia 19 de junho, durante manifestação organizada pelo MPL (Movimento Passe Livre).
Segundo o delegado Antônio Heib, o manifestante, que trabalha em uma cooperativa de ônibus, foi reconhecido por um policial que o gravou queimando uma bandeira do sindicato dos metroviários

mesma pessoa. Ele foi identificado e localizado graças a eventos criados no Facebook.
Na casa de Roza, em São Mateus, zona leste, foram encontrados um notebook e uma câmera roubados, segundo a polícia. Também foram achadas as roupas usadas por ele nas duas manifestações.
Ele foi indiciado pelos cri-

범인 검거도 페이스북으로

브라질 경찰이 테러 단체인 블래키 보키(Black Boc)를 검거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브라질 경찰은 최근 블래키 보키의 멤버이자 기능공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아옹 지 호자(46)를 체포했다.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 폐지하자는 '무임금 승차 운동'을 전개하던 중 상 파울루 피녜이루스의 한 고급 주택에 테러를 가한 혐의다.

metro Russia

ковском парке
прямо на улиц

도심에서 바닷물 샤워 어때요

최근 모스크바 쿠지민키 공원에 바닷물이 나오는 샤워기와 욕조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모스크바 예술가 마리나 즈바긴체바야가 만든 것이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바닷가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설치했다. 즈바긴체바야는 "시민들이 바다에 가지 않아도 휴양지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샤워시설에 아이디어를 더해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에 짝퉁 중국 승려 등장 물의

승복 차려입고 부적 건네며 돈 요구… 여행비자로 곳곳 누비며 갈취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짝퉁 중국 승려들이 대거 등장해 돈을 갈취해 물의를 빚었다..

부랑자가 도시의 색다른 풍경을 이루는 뉴욕에서 이들은 독특한 차림새와 당당한 태도로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머리를 밀고 중국어를 하는 이 승려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작업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 먼저 행인에게 웃으며 복을 기원하고 부적을 건네며 돈을 요구한다. 부적이나 장신구를 팔 때 상대방이 돈을 너무 적게 주면 20달러나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

멋진 절 사진을 보여주며 절에서 향을 피울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보시 장부를 내밀며 다른 사람들이 기부한 액수도 보여준다. 어디 출신이냐고 물으면 말을 얼버무리면서 출신 배경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한다.

미국에서 가짜 중국 승려들의 구걸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불교보살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들고 재물, 액막이, 혼인 등을 이뤄준다며 길거리에서 돈을 요구하는 승려들이 있었다.

미국불교연합회 회장은 이와 관련, "길거리에서 탁발하는 승려는 가짜이며 중국 불교 규칙 상 진정한 출가인은 거리에서 탁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리에서 승려를 만난 한 시민은 "신분을 위장하고 구걸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불자들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짜 승려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행방을 파악하기 힘들다. 미국 불교계에서 몇몇의 신분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여행비자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미 전역을 다니며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경찰은 최근 강제 구걸·무허가 판매 혐의로 '가짜 스님'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국내에서 먹히지 않으니까 해외까지 진출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 "해외에 나가기 부끄럽다"며 가짜 승려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리에도 짝퉁 중국 승려들이 나타난 바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Peru

¿Qué es la calidad de vida para los limeños

리마 사람들에겐 대중교통이 중요

도시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페루 리마 시민은 대중 교통을 1순위로 꼽았다.

최근 페루의 시민단체 '정의롭고 민주적인 페루 도시 네트워크(RPCJDS)'는 리마 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17%는대중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치안 문제와 자연 환경이 각각 15.6%와 13.8%로 2, 3위를 기록했고 문화 체험(10.8%), 대중 서비스(8.6%)가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과를 불러 올 정도로 리마의 대중교통 상황은 열악하다. 승객들은 버스 안내방송이나 정류장 표지판을 통해 목적지를 파악할 수 없다. 체계적인 버스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도 미터기 개념 없이 탑승 전 협상으로 가격이 매겨져 도로 상황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교통 규정과 버스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큰 혼란 없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PCJDS의 마리아나 알레그레 연구원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충분해야 한다"면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통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브리나 로드리게스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2002.84	(+2.34)
코스닥	559.32	(+3.48)
금리(국고채 3년)	2.59	(−0.02)
환율(원·달러)	1013.80	(+1.80)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올해 성장률 4%서 3.8%로 조정

한국은행이 1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월 4.0%에서 3.8%로 0.2%포인트 낮췄다"면서 "내년 전망치 역시 4.2%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이는 세월호 사고 영향 이후 소비위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4월 전망치 2.1%에서 1.9%으로 낮추고, 내년 전망치는 2.8%에서 2.7%로 수정했다.

이 총재는 "향후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다"면서도 "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낮으면 금리를 내릴 여건이 확대된다. 향후 통화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판단인 셈이다.

최근 환율 하락과 관련, "환율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채권단·이통사에 "도와주십시오"

팬택 이준우 대표 "위기 넘기면 회생 자신"

이준우 팬택 대표는 10일 "대한민국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에서 팬택이 존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채권단에 호소했다.

이준우 대표는 이날 서울 상암동 팬택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팬택이 오늘의 경영위기를 맞게 된 데 대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팬택의 경영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팬택 경영진에 있음을 통감한다면서도 어떻게든 팬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마지막까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력으로 이동통신사에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팬택의 상황은 이동통신사에 큰 짐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채권단의 제시안이 이통사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에서 팬택이 존속할 수 있도록 채권단 제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단을 향해서도 "그동안 팬택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줬지만 현재 채권단 제시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부디 지혜를 모아 워크아웃이 중도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현재 팬택 채권단은 이통3사의 출자전환 참여를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한 상황이다. 다만 이통3사가 출자전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채권단 결의는 무효화되고 워크아웃이 종료되면서 팬택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앞서 채권단은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팬택이 지난 3월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3000억원, 이동통신사 1800억원 등 총 4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이동사는 팬택의 출자전환 참여 여부와 관련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막상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출자전환 참여가 부정적이라는 여론이 나오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팬택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단순한 자료가 아니다. 몇개월간 실사작업을 벌여 이 같은 계획이 나온 것"이라며 "재무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 투자유치를 비롯 5개년 계획을 통해 독자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역설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준우 팬택 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팬택 사옥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 현황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보급형 커브드 UHD TV 예판 삼성전자는 커브드 초고화질(UHD) TV의 대중화를 선도할 보급형 커브드 UHD TV 'HU7200'을 출시하고 예약판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총수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55%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전체 자본금 중 총수일가·임원·계열사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3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대기업 40개사의 내부지분율이 5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가 48.3%이고 총수의 친족이 2.2%, 임원 등이 2.2%, 총수가 2.0% 순이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0년 50.5%, 2011년 54.2%, 2012년 56.1%, 2013년 54.8%, 올해 54.7%로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년 연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8개사의 내부지분율은 31.0%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2000년 이후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63개 대기업집단 중 29개 집단은 14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1677개사 중 상장사는 246개사(14.7%)다. 상장사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3조원이다. /유주영기자 boa@

하반기 정보통신 석화 정유건설

대한상의 조사…선진국 회복세 더디고 환율하락 지속 전망

국내 주요 업종의 산업기상도는 정보통신 '맑음', 석유화학·기계·의류 '구름조금', 정유·건설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14년 하반기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종은 '맑음', 자동차·기계·석유화학·섬유·의류 등 5개 업종은 '구름조금', 정유·건설·조선·철강 등 4개 업종은 '흐림'으로 예상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보통신업종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글로벌 시장공략 가속화, 고용량 SSD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브라질 월드컵 특수를 누린 UHD(초고화질) TV 매출도 인도·중국 등 신흥시장의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 스마트폰 실적 부진과 디스플레이의 장기간 수출 부진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내수시장은 신차 대거 출시, 경상용차 생산재개 등으로 수요확대가 예상된다. 수출은 미국·유럽시장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한-EU FTA로 발효로 7월부터 1.5l초과 승용차 무관세 적용 등이 호조세를 이끌 전망이다. 반면 임단협 시즌을 맞은 노사문제, 내수시장에서 수입차판매의 증가세와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가 매출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흐림'을 기록한 석유화학은 합성 등 주요 전방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최근 FTA를 체결한 터키 수출이 증가하며 업황이 회복될 전망이다.

정유업종은 하반기 생산이 내수 정체와 수출환경 악화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정체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4억1989만8000배럴에 그칠 전망이다.

조선업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 시황 회복 지연, 해양플랜트 부문 부진 등으로 '흐림'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태균기자 ksgit@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 × 1.2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

국내 최고층 '동북아무역센터' 불 밝혀

포스코건설 준공식…지상 68층에 높이 305m 위용

국내 현존하는 최고층 빌딩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10일 국내 최고층 건물 '동북아무역센터(NEAT Tower, North East Asia Trade Tower)'의 준공식을 가졌다.

동북아무역센터는 지상 68층에 높이 305m로 8년에 걸쳐 건설됐다. 이날 준공식을 기점으로 해운대 위브더제니스(80층, 301m)를 넘어 국내 현존하는 최고층 빌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 패밀리가 국익을 증진하고, 동북아의 번영을 견인할 백년대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송도의 랜드마크 탄생으로, 국제도시에 양질의 자본이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폭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복합시설로 조성

동북아무역센터는 오피스·호텔 이외에 전망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그중 2~33층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이 입주할 사무실과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송도로 이전 예정인 대우인터내셔널이 9~21층을 사옥으로 사용한다.

36층과 37층에는 연회장·레스토랑·회의실 등 호텔 부대시설이, 38~64층은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423실의 레지던스 호텔로 구성됐다. 송도국제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65층에 위치했다.

동북아무역센터는 향후 롯데몰 송도, 이랜드 복합쇼핑단지로 이어지는 거대한 상권으로 형성돼 수도권 최대 규모 복합상권은 물론 아시아 쇼핑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북아무역센터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시설 역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 빌딩은 위성항법장치(GPS) 센서가 장착돼 바람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건물의 진동·변위·변형 등이 실시간으로 계측, 건물의 안전 이상 여부를 감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 1층에 별도의 통합방재실이 설치돼 전력·조명·CCTV·출입통제 등을 통합 모니터링한다. 30층과 60층에는 각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동북아무역센터는 미국 그린빌딩협회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리드(LEED-CS:오피스를 위한 인증)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생활하수를 모아 정화한 뒤 부분적으로 조경과 건물 내 화장실 변기 등에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 페인트·카펫·벽지 등에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됐다.

◆경제자유구역 규제 철폐 선행돼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2003년부터 송도·영종·청라 지구단위로 개발 중으로, 국제공항·항만·중국을 모두 품어 최상의 지리적 이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많은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정된 인센티브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 ▲수도권 정비계획 적용 등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기업과 동등한 조세혜택과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송도국제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수도권 규제 탓에 외국인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든 '경제특구'가 수도권 규제법과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올 뉴 카니발, 기아차 구원투수 될까?

시승기

올 뉴 카니발

고급세단 같은 실내…정숙한 2.2 디젤 엔진 얹어 독립형 시트 덕에 동승자도 편안한 승차감 느껴

1980년 신군부 집권 이후 '2·28 조치'로 자동차산업이 통폐합되자 기아차는 상용차만 생산할 수 있었고, 이때 나온 차가 '봉고'였다. 봉고 이후 베스타, 프레지오로 이어지던 기아의 승합차 계보는 1998년 '카니발'이 물려받는다. 19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 공개된 카니발은 2001년 카니발2가 나오기 전까지 21만9400여대가 판매되며 기아차를 살려낸 구세주로 기록된다.

올들어 기아차의 판매는 3.4% 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올 뉴 카니발'은 기아차 부활의 중책을 떠맡고 있다.

9일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만난 올 뉴 카니발은 승용차 분위기가 물씬하다. 구형 카니발과 비교할 때 차체를 15mm 줄이는 대신 휠베이스는 40mm 늘였고, 차체 높이는 40mm 낮춰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단단한 인상을 만들어냈다.

운전석은 고급 세단에 앉은 착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존에 센터 페시아에 있던 변속기를 센터 콘솔 쪽으로 끌어내려 승용차처럼 만들었다. 이에 대해 기아차 디자인 담당 윤선호 부사장은 "운전하기에는 센터 콘솔에 변속기를 배치하는 게 훨씬 편하고,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트 배열도 달라졌다. 구형 카니발은 두 가지 휠베이스로 나왔고, 9인승의 경우 3+3+3의 구성으로 시트가 배열됐다. 그러나 신형은 휠베이스를 하나로 통일하는 한편, 9인승은 2+2+2+3으로, 11인승은 2+3+3+3으로 배열했다. 구형 9인승의 경우 독립시트가 4개에 불과해 6명이 탈 경우 불편했지만, 신형은 1열부터 3열까지 독립시트여서 훨씬 안락하다. 짐 공간을 고려한다면 9인승은 6명, 11인승은 8명이 타는 게 적절하다. 4열에 마련된 팝업 싱킹 시트를 바닥에 숨기면 546ℓ의 공간이 마련된다.

2.2ℓ 디젤 엔진은 최근 현대 그랜저 디젤에 얹힌 것과 같다. 197마력에서 202마력으로 늘어난 최고출력은 충분하다. 1750~2750rpm에서 발휘되는 45.0kg·m의 최대토크는 6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려 파워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이 엔진은 공회전 때나 급가속 때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거의 없다. 구형 카니발에서 느껴졌던 진동도 대폭 줄어들었다.

타이어의 경우 11인승 기본형에는 235/65R17 사이즈가 장착되는데, 시승차인 9인승 노블레스는 235/55 R19 사이즈가 장착된다. 구형보다 차체가 40mm 낮아진 데다, 트레드(좌우 바퀴 축간 거리)가 60mm 정도 늘어난 덕에 핸들링은 매우 안정돼 있다.

2열과 3열 시트는 구형보다 안락성을 높였다. 독립형으로 바뀐 3열 시트에도 암레스트를 마련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2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USB 케이블 연결 장치와 220V 전원 콘센트는 경쟁차에 흔치 않은 좋은 아이디어다.

올 뉴 카니발은 9인승이 2990만~3630만원, 11인승이 2720만~3580만원의 가격대이고, 동급 수입 미니밴에 없는 디젤 모델이어서 경제성에서 앞선다.

초반 성적은 기아차의 기대 이상이다. 물량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올해 기아차 실적을 끌어올리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내 손으로 실내 텃밭 가꾼다

찐순이 주부 경제학

한번 치솟은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르자 주부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매일 밥상에 오르는 채소값 역시 만만치 않다. 요즘 같은 때 내 손으로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며 고추, 콩나물 등을 직접 키워보면 어떨까.

싱싱한 채소를 매일 먹을 수 있고, 반찬값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주방이나 베란다 한 쪽에 나만의 '미니 가든'을 꾸며보자.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려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장마철이 되면 햇빛은 강하지만, 실내에 들어오는 양이 평소보다 줄기 때문에 작물이 적응하기 쉽지 않다.

실내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은 바로 '상추'다. 상추는 씨를 심어 싹을 틔우거나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 기르는 방법이 있다. 상추는 포기가 크지 않아 지름 20cm 크기의 화분에 하나씩 심는다. 하루에 한 번씩 흙이 흠뻑 젖을 정도의 물을 주면 되는데, 심은 지 15일 정도 지나면 물 주는 횟수를 1~2회씩 늘려준다.

'콩나물'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작물 중 하나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콩나물 콩과 콩나물을 기를 작은 시루를 준비하자.

콩나물 시루가 없다면 구멍 뚫린 그릇이나 화분도 괜찮다. 그 다음 콩나물 콩을 하루 동안 물에 불려 싹을 틔워준다. 불린 콩이 준비되면 시루 밑에 거즈를 깔아주고, 시루 밑구멍만 얇게 막아준다. 불린 콩을 넣고 검은 천으로 시루를 덮어준 뒤 물을 자주 뿌려주면 된다.

앙증맞고 빨간 '방울토마토'도 직접 기를 수 있다. 방울토마토를 기를 때는 모종을 골라 심어야 한다. /김민지기자 minji@

서울오토살롱 개막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자동차 튜닝·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인 2014 서울오토살롱에서 레이싱 모델들이 튜닝카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업체, 주식시장 문 두드린다

사교육업체의 주식시장 입성이 잇따르고 있다. 사교육 규제에 최근 수년간 사교육주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존 업체들은 해외진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육서비스 업체인 교육혁명은 오는 14일부터 장외시장인 프리보드에 신규 상장해 거래를 시작한다.

거래 첫 날 기준가는 1만6250원(액면가 1만원)이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번 상장을 앞두고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자사 소유의 학원 매입과 지점 확대를 계획 중이다.

교육혁명의 프리보드 입성으로 프리보드 지정법인은 총 48개가 됐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이달 초 개장 1주년을 맞은 코넥스 시장에는 e-러닝 업체인 유비온이 올해 1월 21일 입성해 순항 중이다.

와우패스, 고시닷컴 등 온라인 교육사이트로 잘 알려진 이 회사의 상장 당시 주당 평가액은 1910원(액면가 500원)으로 책정됐다. 유비온의 현재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2500원이다.

이 회사는 당초 2007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업황이 침체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올해 코넥스 시장에 발을 내딛은 이후 실적 목표액이 도달하는 대로 내년 말쯤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내 사교육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업체들은 교육 콘텐츠의 해외 수출 쪽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정상제이엘에스와 청담러닝은 최근 잇달아 중국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브라질 등지와 교육 콘텐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소다스트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 캠페인 탄산수 제조기 브랜드 소다스트림이 10일 경기도 일산 월드짐에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시작' 캠페인을 진행했다. /소다스트림 제공

대기업 취업 9월에 큰 장 선다

세부계획 준비 필요…헤드헌터도 적극 활용해야

9월을 놓치지 말고 헤드헌터를 적극 활용하라.

올 하반기 취업을 노리는 구직자들을 위한 이같은 비책이 공개됐다.

10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 1000대 기업 중 604건의 채용일정을 분석한 결과, 31%가 9월에 서류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26.8%), 11월(23.2%), 12월(10.6%), 8월(7.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9월 첫째 주(2~8일)에 채용을 시작한 기업이 전체의 10.9%(66개사)에 달했다.

실제로 30대 그룹(공기업 제외한 23개 그룹)의 60.9%가 9월 첫째 주에 서류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산그룹과 LG하우시스가 9월 1일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2일에는 CJ그룹·GS칼텍스·KT그룹·OCI·SK그룹·대한항공·동부그룹·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이 채용을 실시했다. 3일에는 롯데그룹이, 4일에는 포스코그룹과 한화그룹이 채용을 시작했다.

서류접수 기간은 평균 13일로 집계됐다. 8~14일 동안 접수를 받은 기업이 59.4%로 절반 이상이었다. 15~21일(22%), 7일 이내(13.1%), 22~28일(4%) 등의 순이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매년 채용시기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올해도 대부분의 기업이 9월에 채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자들은 상반기 취업 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맞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취업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46% "헤드헌터 활용"

취업시장에서 헤드헌트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31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헤드헌터 활용여부를 물은 결과, 45.5%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원하는 인재 채용에 계속 실패해서'가 25.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24.8%), '우수한 인재를 추천해주는 헤드헌터의 역량을 믿기 때문에'(13.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전체 채용의 29%를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영 인크루트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며 "지원하는 회사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량을 보여주면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효성 일가, 주식가치 300억↑

형제의 난 차남 조현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상장 주식가치가 연초보다 3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지난 9일 기준 조석래 회장 일가족이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는 8099억원으로 연초보다 3.3%(25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의 상장 주식 가치가 연초보다 19.1% 늘어난 33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석래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연초 2519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7.2% 감소했다. 3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주식 가치는 연초보다 0.8% 늘어난 2283억원이다.

반면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상장 주식 자산은 크게 줄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의 상장주식 가치는 연초 136억원에서 39억원으로 71.3% 급감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연초 보유하던 효성 지분 0.34%를 처분하고 카프로 주식 2.12%만 보유하고 있다.

한편 조현문 전 부사장은 형 조현준 사장과 동생 조현상 부사장이 대주주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배임 횡령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현준 사장은 트리니티 지분 80%를, 조현상 부사장은 신동진 지분 8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도 이들 회사 지분을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ksgit@

포스코 회장 "성과 내면 파격 보상"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성과 창출 위주의 업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10일 포스코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상반기 혁신 포스코 프로젝트 점검 회의'에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으로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의식과 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임직원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탁월한 성과를 내면 초과 실현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별보상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지난 3월 취임과 함께 특정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전문 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포스코'를 선언했다.

현재 생산·판매·연구·재무·신사업 등의 분야에서 4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비용 절감과 수익성 제고 실적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포스코는 기대하고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LGD, 세계 최초 플렉시블 OLED 개발 성공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18인치 크기의 플렉시블OLED와 투명 OLED를 동시에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 제공

전경련, "기업관련 규제 없애 달라"

#사례:경기도 소재 C 기업은 공장 준공 이후 해당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신증설 면적이 녹지지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받는 등 생산활동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변 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지자체는 공장 소음을 40dB(조용한 숲속,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로 유지하지 않으면 조업중단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628개를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회원사로부터 13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규제종류만 봐도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기술/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국제기준보다 강한 갈라파고스 규제 ▲행정편의적 규제 ▲황당규제 등 다양하다.

실제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불허한 것은 신사업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힌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소비자가 건강과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탄산수를 '먹는 물'로 즐겨 마시게 됐다. 국내 탄산수 시장은 2010년 75억원에서 2013년 195억원으로 3년만에 2.6배가 커졌고, 올해는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탄산수는 먹는 샘물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다. 먹는물 관리법이 먹는 샘물 공장에는 먹는 샘물 이외의 제조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산수는 기존의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제조가 가능하지만 규제로 인해 공장 외부에 따로 음료 제조공장을 세워야한다. 먹는 샘물 공장을 가진 A사는 탄산수 생산을 계획했지만 음료 제조공장을 따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문제로 탄산수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이통사> <대기업> <중소기업>

알뜰폰 시장도 5:3:2?

중소 사업자 이탈 위기… 정부 대책 필요

issue&view
알뜰폰 시장 재편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알뜰폰 시장도 이통3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중소 사업자가 5:3:2로 재편될까.

1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자회사 KTIS를 통해 'M모바일',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를 통해 '유모비'란 알뜰폰 브랜드로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SK텔레콤은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이로써 이통3사가 모두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과 함께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알뜰폰 시장 전체의 50%로 제한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치였다. 5월 현재 SK텔링크의 시장점유율은 16.3%다. KTIS와 미디어로그는 33.7%의 시장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한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미래부의 정책이 중소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못된다고 지적한다. 시장점유율 제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한 중소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미래부가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로 잡은 것은 내부에서도 이미 이들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련한 조치"라며 "만일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시장점유율을 30% 수준으로 제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알뜰폰도 이동통신 시장처럼 5(이통사 자회사):3(대기업 계열):2(중소 사업자)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뉴시스

실제 업계는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뒤늦게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나머지 시장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SK텔링크와 CJ헬로비전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기업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과거 에넥스텔레콤처럼 중소 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업계 1위를 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SK텔링크와 CJ헬로비전이 보조금,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3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있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이통3사 자회사가 치열한 경쟁 상황에 돌입하면 보조금 살포를 통한 가입자 확보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시장체제가 유지될 경우 결국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자금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 사업자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금제는 저렴하지만 단말기를 제값을 주고 사야 해 고가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반면 이통3사 자회사나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 값싼 요금제뿐 아니라 단말기 마저 할인된 가격으로 경쟁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잇따른 가입자 이탈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중소 사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병색 완연한 이재현 회장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강센트럴자이' 초기부담금 '확' 낮춘다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리는 김포시 장기동 일대 중소형 대단지 '한강센트럴자이'를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실속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총 407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한강센트럴자이는 1차로 전용면적 70~100㎡, 3481가구가 공급됐다. 전체의 97%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4베이 구조와 3면 발코니 설계, 서재와 공부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 등 차별화된 신평면을 설계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가족'을 콘셉트로 축구장 면적 약 10배에 달하는 조경면적을 갖추고 있으며, 단지 내 캠핑데크와 자이맘, 티하우스, 잔디 슬로프 등 다양한 특화시설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전용 놀이시설 등 대규모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했다.

여기에 입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줄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 개념을 도입한 각종 시스템과 지하주차장 조명제어, 전력회생형 승강기, 전기차 충전시스템 등 주거 편의를 위한 각종 최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GS건설 '한강센트럴자이' 중앙광장 이미지

김포한강신도시와 바로 접해 있어 한강신도시의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인근에 계획 중인 수변 스트리트 상가(라베니체)를 비롯해 학원, 병원, 금융 등이 들어서 있다. 또 단지 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이 지어질 예정이라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진출입을 쉽게 할 수 있다. M버스(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역까지 30~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김포골드라인'으로 명명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기공식을 가져 교통여건 개선이 한층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김포도시철도는 1조5086억원이 투입돼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9개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 구간은 지하로 건설되며 9개 역을 30분 전후로 주파할 계획으로 2018년 말 개통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최저 861만원부터 시작해 평균 973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2년 전 분양한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해 전세에 지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낮췄다.

김포시 고촌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는 ▲70㎡ ▲84B㎡ ▲84C㎡ ▲100㎡ 등 4개의 유닛이 마련돼 있으며, 현장 홍보관도 함께 운영 중이다. 문의 1644-1988

/박선옥기자 pso9820@

휴대폰 분실 서비스 알아두자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은 휴대전화 분실사례가 많은 계절이기도 하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이 우려된다. 분실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된 가운데 이동통신3사의 대표 단말기 분실 서비스를 소개한다. 이동3사 모두 위치 추적, 데이터 삭제, 단말기 잠금 등의 휴대전화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T파인더'란 분실폰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T파인더는 사생활 정보가 저장된 스마트폰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말잠금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임시잠금 기능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잠시 스마트폰에 락(Lock)을 거는 기능으로 언제든 설정이 가능하다. 분실잠금 기능은 스마트폰 분실이 확실한 경우, 분실신고와 함께 단말락을 걸게 한다. 잃어버린 단말기의 위치조회와 개인정보 삭제를 원하면 분실신고와 함께 분실잠금을 실행해야 한다.

KT는 '올레 폰찾고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위치를 추적하고 데이터 백업을 통해 중요 정보를 보호해준다.

원격명령은 상황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분실 환경에 따라 '집 안(근처)에서 분실' '야외에서 분실'을 택해 진행하면 된다. 위치추적 기능은 스마트폰 소재지를 15분 간격으로 72시간 동안 식별하며 강제발신 기능은 설정된 비상 연락번호로 전화를 강제 발신해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전화를 통해 확인케 한다.

LG유플러스는 '폰케어플러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신규 휴대폰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며 단말기 분실·침수·도난·파손 시 단말기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 **통신3사 휴대폰 분실 서비스**

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서비스명	T파인더	폰찾고정보보호	폰케어플러스
주요기능	단말기 잠금·위치 추적·데이터 원격 삭제·알람 실행 등		

넥슨, 통합 챔피언 꿈 이룰까?

issue&view
넥슨 출사표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럭비(미식축구)를 해도 잘 할 수 있을까?

럭비 역시 공을 차는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럭비는 육중한 몸을 지닌 상대방의 거친 쇄도를 피하거나 견뎌야 하는 만큼 키 169cm의 메시는 좌절을 맛볼 공산도 크다.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이 CJ넷마블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무려 13종의 타이틀을 하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온라인게임 챔피언이 모바일게임 지존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통합 챔피언을 노리는 모양새다.

물론 넥슨도 지난 2년간 간헐적으로 모바일게임을 출시했다. 하지만 '대박'을 내지 못했고 이는 1위 게임사의 자존심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일단 업계의 시각은 긍정적이다. '메이플스토리' '스트리트파이터' '마비노기'와 같은 검증된 게임을 기반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물건을 만들었다.

포켓 메이플스토리.

넥슨 하반기 모바일게임 신작 '마비노기 듀얼'

모바일 신작 13종 출시… CJ넷마블 "게 섯거라"

나쁘게 보면 '재탕'이지만 대중적이고 친근한 작품이 성공한 사례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재창조'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OK' '광개토태왕' 등 자체 개발 스튜디오에서 만든 타이틀도 창의적이라는 평가다. 예전의 '던파'나 '메이플스토리'가 온라인 게임 시장에 줬던 신선함을 재차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구분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온라인게임 DNA를 지닌 넥슨이 모바일게임 시장에 입성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다.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PC에서 즐기는 것처럼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면 PC, 안드로이드, iOS 등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게임을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넥슨의 이번 프로젝트가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J넷마블 역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장시간 성장통을 체험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은 포화상태다. 이 시점에 넥슨이 물량공세를 펴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결국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이 웃는다. 글로벌 유저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아블로3 대악마판 8월 출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블리자드의 액션 RPG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대악마판'을 플레이스테이션3·4용으로 8월 20일 국내에 발매한다.

대악마판은 디아블로 III와 그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에 포함된 모든 컨텐츠를 담고 있으며 가격은 PS3용 3만9800원, PS4용 5만9800원이다.

대악마판의 PS 버전은 모두 4인 동일 화면 플레이와 온라인 멀티 플레이를 지원해 친구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즐기거나 PS네트워크에서 온라인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다.

또 PS3용 디아블로 III 오리지널 버전을 사용했던 경우 자신의 캐릭터를 PS3·4용 대악마판으로 이동해 모험을 계속할 수 있다.

대악마판 구매 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완다와 거상'에 기반한 두 가지 한정 콘텐츠를 제공한다.

/박성훈기자

'서든어택2' 알파테스트 24~27일

넥슨은 10일 넥슨지티의 신작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2'의 알파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일정을 공개했다.

서든어택2 알파 테스트는 정식 대규모 테스트에 앞서 게임 플레이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FPS 게임의 기본기와 핵심 게임성이 잘 구현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언리얼엔진3로 구현된 게임 내 콘텐츠 일부를 공개한다.

테스터 모집은 10일부터 1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당첨자에게는 22일 개별 안내한다.

서든어택2는 106주 연속 PC방 사용량 순위 1위, 국내 최고 동시접속자수 26만7000명 등 수많은 기록을 만들어온 국내 최고 FPS 게임 '서든어택'의 후속작이다. 사실적인 그래픽과 다양한 콘텐츠가 특징이다.

/박성훈기자

야구게임 인기구단 '기아-롯데-삼성' 3파전

야구게임 인기구단 '기아-롯데-삼성' 3파전.

실제 프로야구의 인기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야구 게임. 올 상반기 온라인 야구 게임을 뜨겁게 달군 구단은 기아, 롯데, 삼성(가나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넥슨의 '프로야구2K14' 상반기 결산 자료에 따르면 3월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신규 유저가 구단 생성 시 제일 많이 선택한 구단은 삼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아, 롯데, SK, 한화 순이었다.

같은 시기 엔트리브소프트의 'MVP 베이스볼 온라인'에서는 기아, 삼성, 롯데, 한화, SK 순으로 구단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엔트리브소프트의 야구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 2014'에서는 롯데, 삼성, 기아, 현대, SK 순서를 보였다. 현대 유니콘스는 해체됐지만 박재홍·정민태가 활약한 2000년 현대 선수 카드를 애용한 유저가 많아 순위에 반영됐다.

한편 상반기 인기 선수 캐릭터는 구단 인기 순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프로야구2K14의 상반기 최고 인기 게임 캐릭터는 LA다저스에서 활약하는 한화 류현진 선수였다. 이어 삼성 이승엽, 삼성 오승환, 롯데 이대호, 롯데 손아섭이 상위 5위권에 들었다. MVP 베이스볼 온라인에서는 LG 박용택이 상반기 최고 인기 캐릭터에 올랐으며 NC 이재학, NC 찰리, SK 김광현, 기아 윤석민이 뒤를 이었다.

변정숙 넥슨 과장은 "앞으로도 비슷한 순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올스타전 업데이트도 하반기 야구 게임 이슈"라고 말했다. 황시내 엔트리브소프트 대리는 "월드컵 시즌에도 야구 게임 이용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한국시리즈가 시작되면 야구 게임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희기자 unique@

윤계상·고경표 걸린 뇌수막염, 예방이 최선

감기나 몸살로 오인하기 쉬워…세균성 뇌수막염은 백신 맞아야

그룹 god의 멤버 윤계상이 뇌수막염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에 이어 배우 고경표도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특히 윤계상은 과로로 병원을 찾았다가 이 질환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감기 증상 지속되면 의심을

뇌수막염이란 뇌와 척수를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고열·두통·오한 등이 나타나 감기나 몸살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지속되거나 극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수막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질환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나뉜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엔테로바이러스 혹은 콕사키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며 감기와 비슷하지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후유증 없이 회복된다.

반면 세균성 뇌수막염은 수막구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등과 같은 세균에 감염돼 발생한다. 초기 증상은 고열, 두통과 같은 감기 증상이지만 질환을 방치하면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중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첫 증상이 나타난 후 24~48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질환이다. 또 생존하더라도 5명 중 1명은 사지절단, 뇌손상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만약 영유아기에 발병하면 회복되더라도 성장 불균형, 학습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뇌수막염 역시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경우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 외출 후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평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세균성 뇌수막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질환을 막을 수 있다. 단 원인균마다 백신이 달라 ▲Hib 백신 ▲폐렴구균 백신 ▲수막구균 백신을 각각 별도로 접종 해야 한다. 생후 2개월 이후의 영유아 역시 백신을 통해 질환을 차단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인삼 잎사귀채 싸먹는 새싹삼 신세계백화점이 10일부터 모든 점포에서 잎사귀 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무농약 인증 새싹삼을 15뿌리(12g) 7800원에 판매한다. 새싹삼은 저년근 묘삼으로 사포닌 함량이 뿌리보다 줄기와 잎사귀에 많게는 6배 가량 더 높다. 새싹삼은 잎사귀 그대로 고기에 싸먹거나 갈아서 우유와 음료에 혼합해 마실 수 있는 복날 이색먹거리이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필러 '레스틸렌', 2천만 시술 달성

갈더마코리아, 16일까지 '뷰티 위크' 행사

갈더마코리아(대표 박흥범)가 히알루론산 필러 '레스틸렌'의 2000만 시술 케이스 달성을 기념해 오는 16일까지 서울 청담동 비욘드 뮤지엄에서 '뷰티 위크' 행사를 개최한다.

회사는 비욘드 뮤지엄을 '뷰티 뮤지엄'으로 꾸미고 축하행사를 마련했으며 필러와 세계 뷰티 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성형외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필러 시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도 준비되며 피부 미용에 관한 토크 콘서트도 이어진다.

박형호 갈더마코리아 에스테틱 사업부 전무는 "레스틸렌 2000만 시술 케이스 성공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력을 검증받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레스틸렌이 한국의 쁘띠 성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레스틸렌은 1996년 스웨덴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히알루론산 필러로 현재 7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황재용기자

성인 70% 정맥순환 장애 증상 2개 이상

동국제약, '부부사랑 캠페인' 참여자 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에게 2개 이상의 정맥순환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은 '부부사랑 캠페인'에 참여한 성인 1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맥순환 장애'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참여자의 대부분(98%)이 최소 1가지 이상의 정맥순환 장애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이 2개 이상의 정맥순환 장애 증상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맥순환 장애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67%로 집계돼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질환 인지율을 보였다.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증상은 '발·다리가 무겁고 피로하다(55.2%)'였으며 '자주 붓는다(55.2%)'와 '아프다(4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게다가 남성(2.7개 증상)보다 여성(3.0개 증상)이 많은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상 경험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이상이거나 여성의 경우 평균 3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맥순환 장애는 정맥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결합 조직이 약해져 정맥이 이완되고 확장돼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 기능 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황재용기자

'우리 아이 성장 프로젝트' 특강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 소아청소년과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병원 대회의실에서 '우리 아이 성장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특별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성장과 성조숙증(김혜순 소아청소년과 교수) ▲성장과 영양(최정임 영양과 과장) ▲성장과 운동(김지영 운동처방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아이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 접수 없이 선착순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또 참석자들에게는 목걸이형 카드지갑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문의: 02)2650-5216

/황재용기자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과 정서진(왼쪽)과 아라마루 야경. /코레일공항철도 제공

"아라뱃길서 여름 밤 낭만을"

검암·계양·청라역 가까워 이용 편리

경인 아라뱃길은 뱃길을 따라 다양한 테마공원과 인공폭포, 전망대 등이 조성돼 있어 수도권 시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산책 장소다. 특히 뱃길을 가로지르는 12개의 독특한 모양의 교량들은 밤이면 오색조명으로 장식돼 낭만적이다. 공항철도 검암역·계양역·청라역 등 세 개 역에서 가까워 언제든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고 역 앞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하이킹을 즐기기에도 좋다.

◆계양·검암역 주변 뱃길, 야경 장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계양대교는 계양역에서 5분 거리에 있다. 계양대교 위 인도를 따라 걸으면 아라뱃길 전망을 구경할 수 있다. 다리 건너 귤현나루에는 황어조각상이 있는데 밤이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난다. 이어 뱃길을 따라 김포 쪽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전통 돌담과 기와집의 수향원이 있다. 조선시대 궁중 정원을 재연한 전통 공원으로 이곳의 전통 누각인 수향루는 밤이면 색 조명이 다양해 아름답다.

검암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라뱃길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천교가 반긴다. 시천교의 야간조명은 색깔이 다양하게 바뀌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천교 위 전망대에 오르면 아라뱃길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아래의 백석교는 독특한 디자인에 야간 경관 또한 아름답다. 인근 시천가람터는 수상무대와 수상분수 등으로 수향 3경의 경관을 조성했다.

◆검암역~계양역, 트레킹에 좋아

검암역~계양역 구간은 약 6㎞, 1시간 정도 거리여서 트레킹 코스로 알맞다. 이 구간은 다양한 모양의 다리와 어우러진 조명이 눈길을 끈다. 특히 중간지점 뱃길 건너편에 있는 아라마루 전망대와 아라폭포 야경을 눈여겨보자. 45m 높이 고공에 붕 떠 있는 듯한 모습의 전망대 전체가 오색의 조명으로 장식돼 보는 이를 압도한다. 인근 아라폭포는 낮에는 시원한 물줄기로,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으로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청라역, 정서진의 노을 아름다워

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과 같은 공간에 있는 낙조 명소 정서진은 영종대교 앞 서해와 맞닿아있어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다. 노을을 테마로 한 정서진공원에는 상징 조형물인 노을종이 인기로 일몰 이후 화려한 조명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아라인천터미널의 아라타워 23층 전망대와 전망카페에서는 탁트인 바다와 갯벌 전망을 즐기면서 낙조를 감상하기에 좋다. 퇴역 해양경비함 '1002함'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함상공원도 볼거리며 인공호수에서는 수상자전거 등 다양한 레저체험도 할 수 있다.

정서진은 지난달 21일 개통한 청라역에서 가깝다. 역 뒤쪽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자전거로 5분, 걸어서도 20~30분에 갈 수 있다. 청라역 자전거 대여소는 9월 20일까지 임시 운영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中 암웨이 여행단 방한 '577억 효과'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지난달 방한한 중국 암웨이 인센티브 여행단(1만4791명)의 경제적 파급 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여행단은 단일 행사 최대 방한 규모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577억원의 생산 파급 효과와 153억원의 소득 파급 효과와 1235명에 달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록했다.

또 총 1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여행객의 지출액은 169억원이었으며 그중 쇼핑비가 14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별 관광비(15억원), 식음료비(10억원), 교통비(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관광공사는 앞으로도 대형 인센티브 여행단 유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강원 등 지방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동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핫한 여름, 짜릿하게 놀아볼까?

관광업체 여름휴가 맞춰 다양한 이벤트 선봬

관광업체가 휴가 시즌을 맞아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선보인다. 핫한 여름을 더욱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이들의 아이템을 소개한다.

먼저 하나투어는 대만의 대표 간식 펑리수를 직접 만들고 쑤아오 냉천을 체험하는 등 이색적인 체험 일정을 가미한 대만여행 상품을 준비했다. '스파클링 썸머-대만 4일' 상품으로 대만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궁 박물관, 야류 해양공원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또 나만의 펑리수를 만들어 보는 체험 기회가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투어는 한방 여성용품 전문 브랜드 예지미인과 손잡고 도쿄로 여행을 떠나는 2030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크릿 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다음 달까지 열리는 이벤트는 '레이디스 플랜 투 도쿄'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다. 시크릿 키트는 숲속이야기 텐셀 라이너, 휴대용 그린물티슈 등 여성용품으로 구성돼 있다. 또 예지미인 숲속이야기 텐셀 제품과 관련된 퀴즈 이벤트도 함께 실시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63스퀘어에서 '도심 속 여름 휴양지'를 콘셉트로 하는 패키지를 준비했다. ▲썸머 스위밍 패키지 ▲63夜(야)심만만 패키지 ▲63 팡팡 패키지 등으로 썸머 스위밍은 다시 블루·블랙·골드로 나뉜다. 또 63夜(야)심만만 패키지는 열대야를 피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한 상품이며 63 팡팡 패키지를 이용하면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대명리조트의 비발디파크 오션월드는 여름을 알리는 무더위와 본격적인 방학 시즌을 맞아 여름 파티를 개최한다.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오션월드 내 람세스 무대에서는 인기가수들의 '2014 오션콘서트'가 열리며 콘서트 종료 후에는 오션월드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슈퍼 익스트림리버 불꽃축제'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다음달 17일까지는 ▲아이돌 콘서트 ▲뮤지컬 갈라쇼 ▲스마트폰 게임대회 ▲다이빙쇼 ▲오션걸스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는 '오아시스 쇼'가 휴가객을 기다린다.

/황재용기자 hsoul38@

뷰티업계, 중국서 호평

프리미엄 제품 개발, 추가 연구 필요 지적

최근 국내 화장품들이 중국 스킨케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5월 발간한 'Passport : Skin Care in China'를 분석해 2013년 중국 스킨케어 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 이상 성장하며 1314억 위안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페이셜 케어 부문이 12.1%로 크게 성장했다. 중국 역시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화장품 유형보다 스킨케어 제품에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연평균 8.9%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 기업의 스킨케어 제품에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눈에 띈다. 중국 스킨케어 회사별 점유율 순위에서 아모레퍼시픽이 12위(2.1%)에 올랐고 브랜드별 점유율 순위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와 라네즈가 각각 17위(1.1%), 25위(0.7%)를 기록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최윤주 연구원은 "마몽드나 라네즈의 경우 국내에서의 브랜드 포지셔닝과 달리 중국 내 백화점을 주로 공략하면서 보다 고급스러운 콘셉트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프리미엄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매스 시장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성장률은 프리미엄 시장이 12%로 매스의 8%보다 높았다.

최 연구원은 "가격이 높아도 효과가 입증된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능력이 있는 상류층들을 공략하기 위해 매스 시장의 제품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한다면 시장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 중국 자국 브랜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브랜드인 Inoherb·Herborist·Proya 등은 시장 점유율에서 1%를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특성을 우리 브랜드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 연구원은 "중국은 시장 자체가 워낙 광대하고 또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여름엔 '냉채요리'가 제격

불을 쓰는 조리법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여름, 이럴 때는 재료와 양념을 차게 해 간단하게 만드는 냉채요리가 정답이다. 만드는 과정은 물론 맛보는 순간까지 시원함을 전해주기 때문에 여름철 요리로 제격이다. 영양도 챙기고 입맛도 살릴 수 있는 3가지 냉채 요리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해파리해물냉채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112kcal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해파리 80g, 새우 4개, 쭈꾸미·오이·당근 각 20g, 홍피망 15g, 계란 1개, **[양념]** 겨자 2큰술, 머스터드 1/2큰술, 식초·설탕 각 3큰술, 마늘·간장·소금·참기름 각 약간

1. 해파리는 옅은 소금물에 10분간 담그고 끓는 물에 데친 후 식초, 설탕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물기를 제거해 준비한다.
2. 쭈꾸미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식히고 새우는 내장, 껍질을 제거해 살짝 데친 후 식힌다.
3. 양념 재료를 섞어 겨자 소스를 만든다.
4. 오이·당근·피망·계란지단은 5cm 길이로 채친다.
5. 접시에 ④를 담고 해파리를 담은 후 소스를 끼얹어 낸다.

◆두부미역냉채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95kcal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두부 1모, 미역 100g, 양파·홍고추 각 1/2개, **[양념]** 간장 1/4컵, 참기름·설탕·통깨 각 1큰술

1. 두부는 6등분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물기를 제거하여 냉장고에 넣어 차게 식힌다.
2. 미역은 충분히 불려 다져 놓는다.
3. 양파는 곱게 다져서 물에 씻어 매운기를 뺀 뒤 물기를 꼭 짠다.
4. 홍고추는 곱게 다지고 분량의 양념 재료를 섞어 소스를 만든다.
5. 차게 해놓은 두부를 접시에 보기 좋게 담는다.
6. 두부 위에 다진 미역을 얹고, 그 위에 다진 양파와 홍고추를 얹고 소스를 끼얹어 낸다.

◆건포도돈족냉채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354kcal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돈족 족발 200g, 양배추 100g, 적채 50g, 양파 1/4개, 영양 실부추 30g, 홍피망·청피망 각 1/2개, 대추 5개, 간장 1/2큰술, **[겨자소스]** (단위: 큰술) 갠겨자 1, 식초·건포도 페이스트·오렌지주스·배즙 각 2, 소금 1/3, 다진마늘·연유 각 1/2

1. 돈족은 미리 구입하여 얇게 저며 썬다.
2. 겨자와 따뜻한 물을 1대 1의 비율로 넣고 개어 30분간 숙성시킨다.
3. 건포도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통통하고 부드럽게 불린 후 물은 체에 걸러 버리고 핸드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건포도 페이스트를 준비한다.
4. 모든 채소는 곱게 채 썰어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제거한다.
5. 겨자소스에는 건포도 페이스트와 나머지 재료를 분량대로 넣고 차게 준비한다.
6. 대추는 젖은 행주로 잘 닦아서 돌려 깎아 링으로 썰어 놓는다.
7. 접시에 채소와 대추를 소복이 돌려 담고 가운데 돈족 썰은 것을 담아 먹기 직전에 겨자소스를 뿌려낸다.

과한 볼륨보다 '섹시한 가슴골' 원해

노출의 계절 '모아주는 기능' 브래지어 인기

노출의 계절에 여성들은 과도한 볼륨보다 '섹시한 가슴골'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속옷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은 최근 3개월간 '브래지어로 보완하고 싶은 점'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2500명 중 58%가 '모아주는 기능'이라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작은 가슴 보완'과 '처진 가슴 보완'이 각각 23%, 19%를 차지했다.

특히 75A·80A에 해당하는 응답자 중에도 52%가 모아주는 기능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해 가슴 사이즈가 작은 여성들도 단순히 '크기'보다는 '형태'에 영향을 주는 기능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슴을 모아주는 기능을 갖춘 보디가드 '비비드 레이스 브라'의 6월 판매율은 전월 대비 20%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좋은사람들 마케팅팀 조준의 대리는 "옷이 얇아질수록 과한 볼륨 속옷이 오히려 어색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자연스러운 실루엣에 섹시미를 더할 수 있는 속옷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

휴가철, 미아방지 제품에 눈길

주얼리에 '이름·전화번호' 각인, 가방엔 NFC·GPS 기능 탑재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자녀와 함께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을 찾는 가족이 늘고 있다. 가족과 즐거운 휴가를 보낼 생각에 들뜨지만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를 챙겨야 하는 부모 마음은 즐겁지만은 않다.

최근 유통·패션 업계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미아방지용 주얼리·가방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주얼리는 목걸이나 팔찌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을 넣어 아이를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 모양으로 아이들에 인기가 좋다.

미니골드는 최근 버블베이비 컬렉션을 선보였다. 둥근 형태의 별과 클로버, 하트 등의 펜던트에 천연스톤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으로 목걸이와 팔찌로 구성됐다. 회사는 펜던트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새길 수 있는 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의 키즈 주얼리는 아이가 태어난 달을 기념하는 탄생석을 선택해 아이의 이름과 부모의 전화번호를 각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 키즈라인보다 높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착용하기 좋은 원석 팔찌도 출시했다.

세비아는 최근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인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키즈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애니메이션 주인공 소피아를 형상화한 목걸이와 팔찌 등 다양한 주얼리를 선보이며 미아방지문구 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키즈가디언은 지난 4월 근거리무선통신(NFC)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미아방지 알림 기능을 탑재한 유아가방을 출시했다. 가방 어깨 끈에 부착된 패치를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면 서버에 접속돼 부모의 연락처와 문자수신이 가능하다. 만약 위성항법장치(GPS)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아이의 위치를 부모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독일 패션박람회서 '서울 스타일' 주목

독일에서 열린 세계 규모의 패션박람회에서 한국 패션이 주목을 받았다.

1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8일부터 열린 패션박람회 '브레드 앤 버터 베를린'에는 '서울관'이 설치돼 해외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관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한 콘셉트룸으로 꾸며졌다. 한류 콘텐츠와 디자이너 작품 전시, 국내 톱모델 지현정·장수임의 퍼포먼스를 통해 '패션의 도시' 서울을 소개했다.

/박지원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 정우성

영화 '신의 한 수'에서 관록 넘치는 액션
연기·연출 모두 영화판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최선 다해

20년 전 혜성처럼 등장한 배우 정우성(41)은 영화 '비트(1997)'로 반항과 청춘의 아이콘이 됐다. 남자들은 그를 우상시했으며 여자들은 그를 갈망했다. 그랬던 그가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었다. 반항은 지워졌지만 관록이 더해졌고 그의 액션엔 깊이가 생겼다. 최근 개봉한 영화 '신의 한 수'에서 그는 복수를 위해 내기 바둑판에 뛰어드는 전직 프로 기사 태석 역을 맡아 한국형 액션 히어로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여줬다.

◆ 내기 바둑이란 소재가 낯설다. 또 굳이 바둑이 아녔어도 됐을 것 같다.

'신의 한 수'는 철저한 액션 오락영화다. 사실 바둑이 아닌 다른 내기로 바꿔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바둑이기 때문에 새롭다. 카드나 화투면 80년대 홍콩 느와르나 '타짜'를 흉내 낸 것 밖에 안 된다.

◆ 원래 바둑을 뒀나.

전혀. 사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바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착수(바둑돌을 판에 올려놓는 동작)를 연습했다. 주머니에 돌을 넣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책상 위에 올리기 연습을 했다.

◆ 착수 칭찬은 받았나.

고수일수록 착수 동작이 유연하다고 들었다. 사실 나는 똑같이 뒀는데 바둑 봐주시는 기사님께서 '어, 그거 좋네' 이러셨다. 나는 속으로 '응? 아까랑 똑같이 놨는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어렵다 착수(웃음).

◆ '신의 한 수'가 만화 같다는 평이 많다. 매 시퀀스마다 등장하는 바둑 용어와 새 캐릭터 때문에 '도장 깨기' 만화같이 느껴졌다.

복수 대상을 한 명 씩 제거해 나가는 것 때문이다. 영화에 나오는 여러 요소들이 전부 의도된 것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함께 어우러지면서 '묘수'로 작용한 것 같다.

◆ 여성 관객들이 최진혁(선수 역)과의 '냉동 창고 신'을 좋아하더라.

진혁이가 액션신 경험이 별로 없어서인지 힘을 너무 많이 주더라. 그러면 자기 몸이 통제가 안 돼 사고가 나기 쉽다. 그래서 계속 '힘을 좀 빼라'고 얘기하면서 촬영했다. 그래도 (최진혁이) 타고난 운동신경이 좋아서 잘 찍었다. 이범수(살수 역)씨는 난이도 높은 긴 액션신을 잘 소화해내주셨다.

◆ '끝판왕' 살수와 맞붙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살수 패거리가 모두 검정색 수트를 입었는데 태석 혼자 흰색 수트를 입고 돌진한다. 마치 흑돌과 백돌의 싸움 같았다.

대부분 액션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들은 현란하거나 밝은 색 옷을 입지 않는다. 액션이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신의 한 수'는 만화 같기도 해서 의상 콘셉트 피팅 진행할 때 흰색 수트를 입겠다고 제안했다.

◆ 연출도 해서 그런지 배우 입장일 때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다. 연기도 하면서 언제 '킬러 앞에 노인'을 연출했나.

이번 작품 끝나자마자 바로. 연기를 하면 연출에 도움 된다. 외국엔 연출자 과정에 연기 수업도 있다. 감독이 배우 입장에 서면 어떤 감정에서 어떤 앵글을 잡아야 더 좋을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노리나. 연출자로서 상 욕심이 있을 것 같다.

그냥 흥행이나 했으면 좋겠다(웃음). 실은 신인 감독상을 타고 싶다.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값진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 연기와 연출, 하나만 택할 수 있나.

배우가 내 본업이지만 영화는 커다란 하나의 판이라서 연출·제작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저 지금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난 연기와 연출, 모든 것을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배웠다. 행운이라 생각한다. 거친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스스로 공부했다. 물론 이론과 현장 경험을 다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단 아쉬움은 남지만 내 경우엔 현장이 더 나은 공부였다고 생각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인피니트 소극장쯤이야…

콘서트 '그 해 여름2' 7회 전석 매진

인피니트(사진)의 소극장 공연 전회 티켓이 매진됐다.

다음달 7~10일과 14~16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삼성카드홀에서 열리는 콘서트 '그 해 여름2' 티켓은 9일 예매 시작과 함께 모두 팔렸다. 국내 대표 아이돌 그룹들이 대규모 체육관에서만 공연하는 관례를 깨고 인피니트는 겨울 시즌에는 회당 만 명 이상의 대형 콘서트를, 여름 시즌에는 소극장 브랜드 콘서트 '그 해 여름'을 열며 팬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 측은 "뜨거운 관심에 감사하다. 멤버들이 바쁜 와중에도 틈틈히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사이에 정규 2집 '시즌2'가 발매됐고 그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신곡 무대를 기대해도 좋다"며 준비 과정을 밝혔다.

한편 인피니트는 지난 1일 일본에서 발표한 싱글 '라스트 로미오'로 타워레코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고 이어 오리콘 주간차트에서 2위를 기록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한·미 힙합 정상의 만남

다듀-디제이 프리미어 '어 자이언트 스텝' 발매

국내 힙합신을 대표하는 다이나믹 듀오(왼쪽 사진)와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DJ 디제이 프리미어(오른쪽)가 만났다.

다이나믹 듀오의 레이블 아메바컬쳐는 "오는 16일 두 팀의 콜라보레이션 앨범 '어 자이언트 스텝'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아메바컬쳐에 따르면 이들의 만남은 디제이 프리미어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한국 힙합 뮤지션에 관심이 많은 디제이 프리미어가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를 전부 듣고 협업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다이나믹 듀오와 디제이 프리미어는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앨범 발매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미 힙합을 상징하는 두 팀의 만남이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10년 뒤엔 '천국의 유혹'"

권상우·최지우 11년 만에 재회… 10년 뒤에도 함께하고파

배우 권상우와 최지우가 SBS 새 월화드라마 '유혹'으로 재회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 후 11년 만이다. 권상우는 "10년 뒤에는 '천국의 유혹'을 찍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권상우는 "정말 반가웠다"며 "'천국의 계단'은 지금까지도 나의 원동력이 되는 작품이다. 홍콩에서 10일 동안 촬영했는데 호흡이 잘 맞았다. 내공이 있다는 걸 다시 느꼈다"고 재회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작품이 성공해 10년 뒤 '천국의 유혹'으로 중년의 사랑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지우는 "처음부터 편했다"며 "'천국의 계단'이 첫사랑의 풋풋한 멜로였다면 '유혹'은 성숙한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답했다.

권상우는 '유혹'에서 이정진과도 두 번째 연기 호흡을 맞춘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2004)에 함께 출연했다.

그는 "이정진은 10년이 지나도 내 것을 빼앗는 멋진 남자로 나온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 한가인을 두고 경쟁했다.

이에 이정진은 "영화 이후 한가인이 배우로서 잘 풀렸다"며 "그래도 승자는 연정훈이다. '정훈아 멋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SBS 새 월화극 '유혹' 최지우·권상우 /SBS 제공

권상우는 '유혹'에서 차석훈 역을 맡았다. 명문대에 진학한 수재지만 빚 때문에 벼랑 끝에 서게 되면서 갈등을 겪는다. 최지우는 후계자 수업을 받아 그룹을 이끄는 유세영 역으로 출연한다. 사랑과 결혼에 관심 없던 그는 우연히 차석훈 부부를 만나 삶의 변화를 겪는다. 이정진이 맡은 강민우 역은 외모와 재력을 갖춘 남자지만 바람기가 상당한 인물이다. 차석훈의 아내 나홍주(박하선)를 만나게 되면서 삼각 관계를 형성한다.

박영수 PD는 "사랑만 하며 살 수 없는 어른들의 이야기"라며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보면 좋겠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유혹'은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가 매혹적인 제안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오는 14일 첫 방송.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에프엑스 빌보드200 진입 머지 않아"

걸그룹 에프엑스의 정규 3집 '레드 라이트'가 빌보드에서 집중 조명됐다.

지난 9일 미국 빌보드는 K-팝 칼럼 코너 K-타운에 "에프엑스, 새 앨범 '레드 라이트'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입지를 굳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에프엑스의 앨범을 자세히 소개했다.

빌보드는 "작년 정규 2집 타이틀곡 '첫사랑니'로 빌보드 'K-팝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에프엑스가 1년 만에 '레드 라이트'로 돌아왔다"며 "지난 앨범들보다 더 대중적이지만 자신들의 독특한 음악 색깔을 버리지 않는 음악들로 구성한 앨범을 들고 왔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레드 라이트'에 대해서는 "겹겹이 쌓이는 보컬들과 하모니, 애드리브로 한층 더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구성됐다. 다양한 실험적 비트와 멜로디들로 인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노래를 들으며 모든 소리 요소를 세심하게 듣게 만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에프엑스 빌보드 기사

이어 "타이틀곡뿐 아니라 수록곡 역시 대중성을 가진 동시에 에프엑스의 독특한 색을 입힌 곡들로 구성돼, K-팝 회의론자들도 신선하게 느낄 것"이라며 "에프엑스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들어가는 것도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프엑스는 11일 KBS2 '뮤직뱅크', 12일 MBC '쇼음악중심', 13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 타이틀곡 '레드라이트'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tvN
tvN 금토드라마
연애 말고 결혼
남 일인 듯 남 일 아닌
밀당 전문 로맨스
오늘 저녁 8시 40분 tvN 첫 방송 / 매주 [금,토] 방송

박유천 첫 일본 팬미팅 성황

1만5000명 3시간 열광

JYJ의 박유천(사진 오른쪽)이 드라마 팬미팅으로 1만5000여 일본 팬을 사로잡았다.

박유천은 9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드라마 '보고싶다' 팬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의 일본 첫 단독 팬미팅으로 티켓 경쟁률은 5대1에 달했다.

'보고싶다'의 주제가인 '마법의 성'을 부르며 오프닝 무대에 오른 박유천에게 팬들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종이를 든 채 '유천, 보고 싶었어!'라며 한마음으로 외치며 공연장을 노랗게 물들였다.

그는 드라마 촬영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팬들과 함께 드라마를 추억하기도 했고, 스태프들로부터 받은 제보로 '박유천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코너를 통해 팬들이 박유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박유천은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일본에서 단독으로 팬들과 만나는 시간이 처음이라 긴장도 됐고, 일본어도 서투를까 걱정했는데 무척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드라마 '미스리플리' OST '너를 위한 빈자리'와 애창곡인 '너에게 기대'를 열창했고 팬들의 앙코르 요청에 자작곡 '그녀와 봄을 걷는다'를 부르며 3시간 동안의 팬미팅을 마무리했다.

박유천은 이달 말 JYJ의 두 번째 앨범을 발매하고 다음달 영화 '해무'로 관객과 만난다.

/유순호기자 su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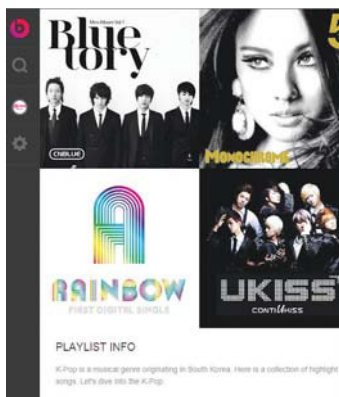
CJ E&M, 비츠뮤직 큐레이터 참여

CJ E&M 음악사업부문이 미국 음원 서비스 회사 비츠일렉트로닉스(이하 비츠)와 손잡고 북미 음악 시장 공략에 나선다.

CJ E&M은 비츠가 운영 중인 미국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비츠뮤직에 K-팝 음원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음원을 선정해 소개하는 큐레이터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츠뮤직 큐레이터는 권위와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음악 청취와 관련한 다양한 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선곡 리스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롤링스톤지 매거진, 피치포크, 울트라뮤직 등 전세계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단 30개 음악 전문 브랜드만이 큐레이터로 참여 중이다. 차별화된 음악 선곡으로 현재 비츠뮤직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CJ E&M 측은 이번 큐레이터 참여는 전세계 2위권 음악 시장인 일본과 신흥 강자 중국을 제치고 이뤄낸 성과로 K-팝의 해외 활로를 개척하게 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비츠뮤직에 15만곡에 달하는 K-팝 음원을 독점 공급 중인 CJ E&M은 향후 국내 K-팝 제작자들이 손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CJ E&M 음악사업부문 안석준 대표는 "음원 독점 공급에 이어 큐레이터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한국 음악을 해외시장에 어필할 수 있게 됐다"며 "공격적인 글로벌 음악 시장 개척을 통해 K-팝의 글로벌 산업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금요 예능 '남자 vs 남자'

'나는 남자다' '나 혼자 산다' 남성 관심사·생활 방식 다뤄

남자의, 남자에 의한 예능이 금요일 밤을 책임진다. 시대 변화에도 여성이 TV의 주 시청자 층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남성은 물론 여성 시청자까지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다. KBS2 '나는 남자다'와 MBC '나 혼자 산다'는 남성들의 관심사부터 생활 방식까지를 각각 토크와 리얼 예능으로 풀어 낸다.

'나는 남자다'는 지난 4월 KBS가 선보인 5개 파일럿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정규 편성이 확정됐다. 당시 MC 유재석은 "여성들은 몰래 보세요"라고 말해 호기심을 자극했다. 방송은 남중·남고·공대 출신 남성 방청객 250명과 5명의 진행자 유재석·노홍철·임원희·장동민·허경환이 남자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이다.

방송은 시작 전부터 아류 논란에 휩싸였다. JTBC '마녀사냥', MBC '놀러와-트루먼쇼'와 유사하다는 것.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재석의 수위 적절한 진행과 노홍철·장동민의 도발이 조화를 이뤄 '19금' 토크쇼일 것이란 오해를 종식시켰다. 방청객의 솔직한 반응과 주류 방송에서 쉽게 다뤄지지 않았던 '포경' '야동'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신선하다는 평가다.

정규 편성으로 일부 출연자가 교체되기도 했다. 배우 권오중이 노홍철 대신 합류하면서 유재석과 예능 호흡을 두 번째로 맞추게 됐다. 두 사람은 '놀러와-트루맨 쇼'에서 성인 남성의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관계자는 10일 "오는 27일 첫 녹화까지 추가 조정 사항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홍철이 하차한 건 그가 현재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이기 때문이다. '나 혼자 산다'와 '나는 남자다'는 방송 시간이 겹친다.

KBS2 '나는 남자다' /KBS 제공

MBC '나 혼자 산다' /MBC 제공

'나 혼자 산다'는 독신 남자 연예인 6명의 생활을 보여준다. 맏형 김용건과 전현무, 김광규, 데프콘, 육중완 그리고 프랑스 독신남 파비앙까지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이들은 무지개 모임으로 뭉쳐 일상을 공유한다. 방송은 연예인들의 반전 생활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화려하게 살 것 같은 무지개 회원들의 실제 모습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특히 싱글남의 고독을 자기 개발에 몰두하거나 외출로 해소하려는 여섯 남자의 일상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미스코리아 김유미, 이민호와 한솥밥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유미(24·사진)가 이민호와 한솥밥을 먹게됐다.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김유미와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김유미의 전반적인 방송 연예와 대외 활동에 걸쳐 포괄적 매니지먼트를 담당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속사는 "김유미는 그동안 여러 대형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는데 스타하우스와 손잡고 연기자로서 첫 출발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며 "배우로서 자신만의 색으로 폭넓은 활동을 보여줄 김유미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김유미는 "무엇보다도 신뢰와 화합을 우선시 하는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선택했다"며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신인 연기자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김유미는 2012년 제5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에 당선돼 한국을 대표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한편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이민호·박솔미·정성운·신동미 등이 소속돼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

희망 메신저 아름다운 뮤지션

이승철, 탈북청년합창단 지휘
독도·UN·하버드대 공연 추진
쉼없는 선행… 투어·심사위원도

음악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온 가수 이승철이 새로운 꿈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탈북청년합창단을 이끌고 독도, 미국 UN본부와 하버드대에서 통일송을 부르는 '온(ON)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합창단, 대안학교 청소년 합창단을 지휘한 바 있는 이승철이 또 한번 의미 있는 음악 활동을 벌인 것이다.

"탈북청년모임인 '위드-유' 관계자가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탈북자들이 받고 있는 불편한 시선 개선, 평화와 통일에 관한 관심 고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엠넷 '슈퍼스타K 5' 출신 그룹인 네이브로의 정원보가 작사·작곡한 '그날에…'를 합창한다. 이승철은 솔로 버전과 세계적인 뮤지션과 함께하는 영어버전을 9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음원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과 통일 관련 기관에 기부할 계획이다.

유명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이 편곡을 맡고,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엔지니어 스티브 핫지가 믹싱을 담당했다. 스페인 출신의 유명 화가 에바 알머슨이 홍보에 동참한다. 이들은 모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합창단과 함께 8월 15일 광복절에 독도에서 '그날에…'를 최초로 공개한다. 8월 말 해외 NGO 단체장들의 회의가 열리는 미국 UN본부, 인권 교육의 중심인 하버드대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합창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원 네이션(One Nation: 하나의 국가)'이라는 뜻의 '온(ON)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탈북자가 힐링할 수 있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으로 번져갔으면 해요. 오프된(꺼진) 마음을 다시 켜고 밝히겠다는 뜻으로 '온 캠페인'이라 이름지었죠."

이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아프리카 차드 학교짓기, 한국전쟁 프랑스 참전용사 위로, 심장병 환우 돕기 등 수년째 해오는 선행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30년 가까이 음악을 하면서 이제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소외된 이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희망' 아닐까요."

◆ 여름공연 인기 브랜드로

본업 역시 여전히 바쁜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여름 공연은 올해도 지난 5일 울산에서 시작했다. 12일 수원 월드컵 보조경기장, 18~1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26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 8월 2일 순천 팔마체육관 등에서 콘서트를 연다.

"지난해에 '비치보이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여름 콘서트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휴가를 반납하고 팬과 공연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무더위에 지친 관객을 위해 시원한 물 대포를 맞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바캉스 같은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나이야가라'로 지었죠."

매년 봄·가을 전국투어와 겨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해 온 이승철은 유일한 휴식기인 여름까지 공연으로 채우며 '라이브 황제'의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올 겨울 콘서트는 '산타코러스'라는 이름으로 기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승철이 탈북청년합창단과 연습하고 있다.

또 엠넷 '슈퍼스타K'의 원조 심사위원인 그는 올해도 여섯 번째 시즌을 이끈다.

"올해 심사위원을 계속 해야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예비가수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심사위원 자리에 앉기로 했죠. 올해는 찾아가는 오디션으로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실력자들이 많이 출연할 거라 확신합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드라마 OST 음반시장 강타

'닥터이방인' '너포위' 인기 가수 참여 앨범 발매

국내 인기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이끌면서 음반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과거 디지털 음원으로 공개됐던 드라마 OST가 최근에는 질을 높여 정규 앨범으로 제작되고 있다. 드라마 종영으로 허전해진 시청자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종영한 '닥터이방인'의 OST 정규앨범은 9일 발매와 함께 인기몰이에 나섰다. '닥터이방인' 정규 앨범에는 음원으로 출시된 OST 곡부터 미 발매 음원까지 총 7곡의 가창곡과 김장우 음악감독의 주옥같은 오리지널 스코어 10곡을 포함해 총 17곡이 수록됐다. 대세 작곡가 이단 옆차기와 신사동호랭이의 참여로 완성도를 높였다. '닥터 이방인' 정규 OST 앨범 트랙에는 남자 주인공 이종석의 테마곡으로 사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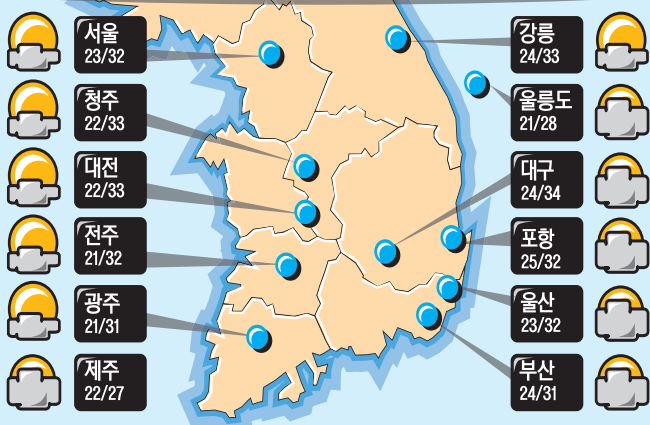
닥터이방인.

너희들은 포위됐다.

받은 바비킴의 '이방인'을 비롯해 이기찬의 '지금 만나러 가요', 전혜원의 '이렇게 좋은 날', 지오의 '내일이 안 올 것처럼', 민아의 '니가 내가' 등 풍성한 OST 곡들이 담겨있다.

또 SBS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 OST는 종영을 앞두고 10일 발매돼 주목받고 있다. 수목드라마 부동의 시청률 1위를 지켜온 '너포위'의 인기에 힘입어 OST 전트랙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국내 OST차트 상위권을 싹쓸이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너포위' OST에는 대세 랩퍼 산이의 아기자기한 가사와 사랑스러운 멜로디로 이승기·고아라 커플의 설레임을 표현했던 '나 왜이래'가 담겨있다. OST 퀸 태연만의 깊은 감정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돋보이는 애절한 발라드 '사랑 그 한마디', 2년여 만에 OST로 돌아온 명품 보컬리스트 이승철의 '사랑하나봐', 'K팝스타3' 톱3 출신인 권진아가 부른 유희열표 웰메이드 발라드 '그대만 보여요'도 수록됐다.

/양성운기자 ysw@

과도한 음주량으로 인한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환자가 많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도 만성 간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 개발기지가 들어설 뻔했던 서울대공원 터

지난 1984년 문을 연 과천 서울대공원은 동물원을 비롯해 식물원과 현대미술관, 산림욕장과 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로 시민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무기 개발기지'가 들어설 뻔했던 곳이기도 하다.

지난 1960년대 베트남에 국군 장병을 파병해두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상황을 맞았다.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기 힘든 베트남전의 수렁 속에서 집권한 리처드 닉슨 미국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제기하고 나선 탓이다. 닉슨 독트린의 주요 내용은 '미군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며, 미군은 앞으로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축소한다. 미국은 원조만 제공할 테니 아시아 국가들은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미군이 철수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박 정권은 핵무기를 포함한 신무기를 자체 연구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그 개발기지를 세우기 위해 매입한 땅이 바로 지금의 서울대공원 터였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동지이기도 했던 김재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관계와 국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과천에 약 2백만 평의 땅을 매입하라고 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정보기관이 눈치 챌 위험이 있으니 극비에 추진하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신무기 개발기지는 끝내 그곳에 들어서지 않았다. 면밀히 조사해 보니 그곳은 북한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신무기 개발기지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대전에 들어섰는데, 그 마저도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 때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 곧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과천 터에 들어선 것은 북한 평양동물원의 규모를 능가하는 지금의 서울대공원이었다. 남북간의 군사 대결이 동물원 규모 대결로 바뀐 셈이었다. 마냥 즐거운 놀이공원 같지만 그 속에는 얼마 오래 되지 않은 한국현대사가 숨어있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6		5			
			8					3
1	4						5	
		8			6		9	4
9			7		4			6
7	6		5			2		
	3						6	2
5					7			
			3		2	4		

		6					7	1
				9	7		5	
	2	3	4	1				
	4	5			1			
				8				
			2			7	6	
				7	2	1	8	
	8		1	4				
5	9					2		

스도쿠 정답

3	8	2	6	1	5	9	4	7
6	7	5	8	4	9	1	2	3
1	4	9	2	7	3	6	5	8
2	5	8	1	3	6	7	9	4
9	1	3	7	2	4	5	8	6
7	6	4	5	9	8	2	3	1
4	3	7	9	5	1	8	6	2
5	2	6	4	8	7	3	1	9
8	9	1	3	6	2	4	7	5

9	5	6	3	2	8	4	7	1
4	1	8	6	9	7	3	5	2
7	2	3	4	1	5	8	9	6
8	4	5	7	6	1	9	2	3
6	7	2	9	8	3	5	1	4
1	3	9	2	5	4	7	6	8
3	6	4	5	7	2	1	8	9
2	8	7	1	4	9	6	3	5
5	9	1	8	3	6	2	4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다니며 세무사 공부 잘될까요
최선 다하면 2019년쯤 결실 맺어요

Q 라즈베리s 여자 83년 9월 29일 양력 밤11시48분

선생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늘 불안했던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었으며, 회사가 불안정해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앞날을 위해 지금 결단을 안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그 동안 꿈꾸던 세무사가 되기 위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직장을 다니며 야간에는 세무사 학원을 다닙니다. 우선 내년에 처음 시험을 쳐볼 예정이구요. 2~3년 내 합격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언제쯤 세무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A 한고비의 파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파도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듯이 파도가 밀려가고 밀려오듯 인생은 잔잔하지를 못합니다. 인성(印星: 학문) 무토(戊土)가 시지(時支)에 있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태어난 일(日)과 밤11시 48분 태어난 시(時)에 의해 신자진(申子辰) 반합수국(水局)을 이루니 구진득위격(句陳得位格)으로 부(富)를 이루어 내는 사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소 의아해 할 수도 있으나 필연적이니 43세 이후 먼 훗날이라도 그리 된다고 신념을 가지십시오.

2016년 2019년 운세는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2016년은 공부하다가 결혼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과일 중에 석류(石榴)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 소란스러운 것을 멀리하고 평온한 환경을 찾아야하는데 석류의 알갱이처럼 주관이 확고하고 청순합니다. 다만 성정으로 석류처럼 열정적으로 아름답지만 많은 알갱이를 갖고 있듯이 번민과 상념이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공부가 힘들다보니 결혼을 선택 할 수 있을 터 이것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니 이러한 자신의 성정을 알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어려운 시험이니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되 실패를 했을 때 내년2015년도 천간(天干: 乙未年 乙木)에서 충살(沖殺)을 당하고 있으며 시험 운이 사절(死絶:사망과 단절)로 가니 자신에게 불리하겠지요. 알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2019년이 되면 경쟁자가 없어지게 되어 귀하가 유리하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35세에 결혼 운이 있으니 그 점도 유의하세요. 건강이 중요 하니 호흡기와 순환계통의 질환을 유의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1일 (음 6월 1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배우자와 희비 엇갈린다. **60년생** 내 귀에 들어온 정보는 가치가 없음을 명심~. **72년생** 매사 조심해야 손실이 없다. **84년생** 연인의 마음이 흔들리니 잘 살펴라.

49년생 집안일은 관망만 할 것. **61년생** 어려운 부탁받고 고민에 빠진다. **73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서 살맛이 나는구나. **85년생** 상사의 조언에 자신감이 넘친다.

50년생 신변에 좋은 변화가 있다. **62년생** 수입을 생각하며 지출할 것. **74년생** 생각 바꾸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바뀐다. **86년생** 쉬운 일만 하려는 생각 버려라.

51년생 현재 상황에 만족할 것. **63년생**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75년생** 욕심 버리고 동료와 힘을 합쳐라. **87년생** 생각도 못한 벗이 찾아와 즐겁게 한다.

52년생 주택문제에 고민이 생긴다. **64년생** 유명무실한 명분은 과감히 버려라. **76년생** 집안의 웃음소리가 담 밖을 넘는다. **88년생** 걱정했던 일이 풀려 속이 뻥~.

53년생 실물수 있으니 귀중품 조심~. **65년생** 의지가 강하면 없던 길도 생긴다. **77년생** 대안이 없는 반대는 백해무익 명심~. **89년생**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이롭다.

42년생 욕심 부리면 말썽 생긴다. **54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잘 살펴라. **66년생** 자영업자는 어려운 고비 넘긴다. **78년생** 직장인은 위상이 올라갈수록 겸손할 것.

43년생 협력자의 말을 들어라. **55년생** 베풀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67년생** 변수가 많으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79년생** 맛깔스러운 요리상을 받은 격이다.

44년생 남의 일로 종일 바쁘다. **56년생** 먼 거리 외출할 땐 안전사고 조심할 것. **68년생** 기회가 왔을 때 야망을 키워야 한다. **80년생** 사소한 구설수 조심할 것.

45년생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무난~. **57년생** 분수를 지키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다. **69년생** 고집 부려서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 **81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46년생 자녀가 감동의 선물 안긴다. **58년생** 남의 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 **70년생** 남에 의해 바뀌면 인생은 힘이 든다. **8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명심~.

47년생 결정 난 일은 고집 부리지 말라. **59년생** 안 풀리는 문제는 접는 게 이롭다. **71년생** 갑자기 친절한 사람은 경계할 것. **83년생** 한턱 쏠 경사가 생긴다.

실패한 의리축구 의리있게 퇴장

홍명보·허정무·황보관 줄사퇴
정몽규 회장 "쇄신책 마련할 것"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악수를 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의 맹비난을 받던 홍명보(45) 감독과 허정무(59)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황보관(49) 기술위원장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홍명보 감독은 10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오늘로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자리를 떠나겠다"며 "좀 더 발전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령탑을 맡은 1년여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나 때문에 많은 오해도 생겼다"며 "모든 게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팬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월드컵 최종명단을 확정하면서 불거진 '의리 논란'에 대해선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절대 아니다"며 "한국 축구 사령탑은 '독이 든 성배'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시작했다. 팬들도 후임 사령탑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24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382일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고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이날 허정무 부회장도 동반 사퇴했다. 허 부회장은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홍 감독과 함께 동반 사퇴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드컵 부진의 모든 책임은 떠나는 나와 홍 감독에게 돌려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받은 팬들의 많은 사랑을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황보관 기술위원장까지 사퇴의사를 밝혔다. 지난 3일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응원단 '붉은악마'가 황보관 기술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홍명보 감독과 허정무 부회장의 연이은 사퇴에 압박을 견디다 못한 황보관 위원도 동반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사퇴 소식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저를 비롯한 협회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성적 부진에 이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젠 황보관 기술위원장의 사퇴를 통해 앞으로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위원회를 대폭 개편하고 후임 대표팀 감독을 조속히 선임할 것"이라며 한국축구의 개혁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말을 덧붙였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아르헨티나, 독일과 우승컵 단판

네덜란드에 승부차기 승

네덜란드와의 승부차기에서 맹활약한 아르헨티나 골키퍼 세르히오 로메오. /로이터 연합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를 꺾고 24년 만의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아르헨티나는 10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레나 코린치앙스에서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네덜란드와 0-0으로 비긴 뒤 연장전에 이어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겼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4-3-3 포메이션(전술대형)을 들고 나왔다. 공격진에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좌우에 에세키엘 라베스(파리 생제르맹), 곤살로 이과인(나폴리)이 나섰다.

중원에는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바르셀로나), 루카스 비글리아(라치오), 엔소 페레스(벤피카)가 포진했다.

좌우 풀백은 마르코스 로호(스포르팅 리스본), 파블로 사발레타, 센터백은 마르틴 데미첼리스(이상 맨체스터시티), 에세키엘 가라이(벤피카)가 맡았다. 선발 골키퍼는 로메로.

이에 맞선 네덜란드는 중앙 수비수 3명과 윙백 2명 등 수비수를 5명까지 포진하는 3-5-2 시스템을 꺼냈다.

로빈 판 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리언 로번(바이에른 뮌헨)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달레이 블린트(아약스), 디르크 카위트(페네르바체)는 좌우 윙백으로서 공수를 오갔다. 베슬레이 스네이더르(갈라타사라이), 헤오르히니오 베이날둠(에인트호번), 나이절 더용(AC밀란)이 중원에 포진했다.

수비진에는 스테판 더프레이(페예노르트), 론 플라르(애스턴 빌라), 브루누 마르팅스 인디(페예노르트)가 버텼고 골키퍼는 야스퍼르 실레선(아약스)이 맡았다.

전날 브라질의 선제골 후 참사 때문인 듯 두 국가는 상대 역습을 겁내며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갔다. 다소 따분한 경기라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이날 승부는 승부차기로 결정됐다.

네덜란드의 선축에서 1번 키커 플라르의 슈팅은 세르히오 로메로(모나코)의 손에 막혔다. 아르헨티나는 에이스 메시를 1번으로 내보냈고 슈팅은 실수없이 골망에 꽂혔다.

네덜란드는 로번이 두 번째 슈팅에 성공했으나 아르헨티나도 가라이가 성공으로 맞섰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세 번째 키커 스네이더르의 슈팅은 또 로메로의 손에 막혔고 아르헨티나는 아궤로의 슈팅 성공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네 번째 슈팅에서 네덜란드의 카위트, 아르헨티나의 로드리게스가 모두 슈팅을 골망에 꽂아 결국 아르헨티나의 4-2 승부차기 승리가 확정됐다. 이날 로메로 골키퍼는 승부차기에서 두 차례 네덜란드의 슈팅을 막아내 승리의 수훈갑으로 우뚝 섰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14일 오전 4시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독일과 결승전을 치른다. /양성운기자

고려대 '아시아퍼시픽' 우승

연세대 꺾고 초대 챔피언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결승전에서 연세대 정재근 감독이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정재근 감독은 심판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고려대가 'KCC와 함께하는 2014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에서 우승하며 초대 챔피언이 됐다.

10일 오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고려대는 연세대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87-80으로 승리를 거뒀다. 고려대는 경기 초반 40-35로 앞서 나가다 3쿼터 연세대의 정성호와 천기범에게 3점슛을 연이어 허용하며 따라잡혔다.

연세대는 고려대를 16점 차까지 따돌렸으나 4쿼터 종료 4분여를 남기고 연세대 김준일이 5반칙 퇴장을 당하며 경기 흐름을 고려대에 빼앗겼다. 4쿼터 종료 30여초 전 고려대는 김지후의 3점슛으로 80-80 동점상황을 만들었고 연장전에서 7점을 추가로 넣으며 승리했다.

대한농구협회가 남자농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창설한 이번 대회는 연세대·고려대·경희대·동국대와 미국·중국·일본·대만·필리핀·호주 등 해외 10개 대학팀이 출전했다.

한편 이날 연장전에서 정재근 연세대 감독은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 도중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어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장전 종료 2분 최준용의 골밑슛을 이승현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파울이라고 여긴 정 감독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심판을 때리려는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어 정 감독은 경기 도중 코트에 난입해 직접 파울을 분 다른 심판에게 다가가 머리로 들이 받았다.

/김지민기자 langkim@

프로야구 전적 10일

■ 잠실

두산	0 2 0	1 4 1	2 2 1	13
L G	2 0 0	0 0 2	0 7 1	12

△승리투수 = 볼스테드(5승7패) △세이브투수= 정재훈(1승2패2세이브) △패전투수 = 류제국(4승5패) △홈런 = 김현수 12호(4회1점) 홍성흔 13호(5회2점) 오재일 2호(6회1점·이상 두산) 정성훈 7호(6회1점) 이병규(7번) 6호(8회4점·이상 LG)

■ 문학

KIA	0 1 2	0 0 0	3 0 1	7
S K	0 0 2	0 1 0	0 0 2	5

△ 승리투수 = 김태영(5승 3패) △ 패전투수 = 채병용(6승 8패) △ 홈런 = 김주찬 7호(9회1점·KIA)

■ 대구

롯데	0 0 0	0 0 0	0 0 5	5
삼성	0 0 1	1 0 0	0 0 0	2

△ 승리투수 = 강영식(1승 3패) △ 세이브투수 = 김승회(1패 13세이브) △ 패전투수 = 임창용(4승 2패 17세이브) △ 홈런 = 전준우 8호(9회3점) 손아섭 10호(9회1점·이상 롯데)

■ 청주

넥센	0 2 0	0 0 0	0 0 0	2
한화	4 0 0	0 0 0	0 0 X	4

△ 승리투수 = 앨버스(3승 8패) △ 세이브투수 = 박정진(2승 1패 3세이브) △ 패전투수 = 하영민(3승 5패) △ 홈런 = 김태균 11호(1회3점·한화) 박헌도 2호(2회2점·넥센)